일 주 문



만공선사 학술대회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9월 8일 오후 1시 수덕사 황하정루서 '제8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보덕사 호수음악제

정안 당진 보덕사 주지 스님은 8월 28일 보덕사 경내 특설무대서 '제9회 보덕사 호수음악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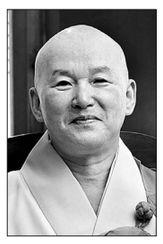


장애부모 휴식캠프

조석영 강북장애인복지관장은 8월 23~25일 제주도서 2016 서울시 장애돌봄가족 휴가제 지원사업 '휴(休) 캠프'를 실시했다.

신임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

자승 스님 "문화재 보존 · 환수 노력" 당부



조계종 신임 불교중앙박물관장에 현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2일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신임 관장 현조 스님에게 "신심과 원력,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문화부와 협조를 통해 문화재 보존 및 환수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조 스님은 혜정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으며, 제14, 15대 중앙종회의원, 국제선센터 주지,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인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실 · 팀장 인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8월 23일자로 직원 실 · 팀장에 대한 일부 인사발령를 진행했다.

직위 승진
▷ 교무처 교무팀장 임종민
▷ 파라미타칼리지 학사운영실장 민준석

전보
▷ 인재개발처 취업지원센터장 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일자리사업팀장 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진로취업컨설팅팀장 이원재
▷ 인재개발처 학생서비스팀장 겸 인재개발처 참사람재능나눔센터장 겸 인재개발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임명수
▷ 총무처 총괄지원팀장 구경덕
▷ 총무처 재무회계팀장 겸 산학협력단 회계감사팀장 최수호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 권영섭
▷ 비서실 비서팀장 김성규
▷ 도서관 학술정보팀장 성채용
▷ 불교문화대학(원) 학사운영실장 박득현

"개산대재서 예수재 전통 계승"

개산 1222주년 행사 여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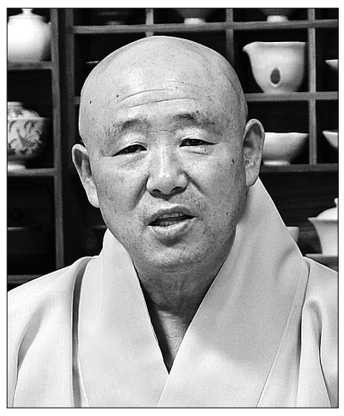
오는 10월 1일(음력 9월 1일) 개산 1222주년을 맞는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 사진)가 다양한 불교문화행사를 마련하고, '강남 지역 불교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8월 22일 경내 다래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22주년 봉은사 개산대재 및 불교문화축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10월 1~9일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기존 개산대재 형식서 탈피, 생전예수재 및 수륙재 등 불교 의례를 비롯해 산사음악회 · 사진 공모전 · 행복 나눔 바자회 등 문화 행사를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끈다.

이는 봉은사를 강남 지역 불교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단 주지 원명 스님의 뜻으로 이뤄졌다.

"강북과 강남은 같은 서울이지만, 강북에 비해 강남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에 개산대재를 9일 간 진행함으로써 하나의 지역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강남에 불교문화를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특히 10월 8일과 9일 오전 9시~오후 6시 각각 진행되는 생전예수재(불교서 살아 있는 사람의 사후를 위하여 공덕을 쌓는 종교의식)와 수륙재(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는 재)는 개산대재 일정 중 봉은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윤달이 있는 해에만 약식으로 진행돼 온 것을 전통방식 그대로 계승, 대중에 첫 선을 보이는 자리기 때문이다.



10월 1~9일 의례 · 문화행사 등 불교문화체험 '축제의 장'으로 전통방식 재현하는 생전예수재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계획도

이와 관련 원명 스님은 "옛 문헌을 보면 봉은사가 조선 말기에 생전예수재를 최초로 봉행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특히 봉은사는 과거부터 생전예수재와 수륙재를 양일에 걸쳐 연이어 진행한 전통이 있다.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원명 스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봉은사는 이번 개산대재를 기점으로 '봉은사 생전예수재 보존회'를 무형문화재로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생전예수재가 일회성 의례가 아닌 봉은사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자리 잡길 바라는 원명 스님의 서원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안 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미래세대까지 전승돼 봉은사의 대표적인 문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명 스님은 불교 의례와 문화 행사를 함께하는 의미에 대해 '포교방편'이라 설명했다.

"시대가 변한 이유도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가장 친근히 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불교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부일정은 △역대조사 다례재(10월 1일 오전 11시) △정대불사(10월 3일 오전 11시) △산사음악회(10월 7일 저녁 예불 후, 10월 4~6일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봉은사 역사사진 공모전(9월 23일 모집 마감)과 사진전(10월 1~7일) △신도회 행복나눔 바자회(10월 1~3일) △사찰음식 도시락 경연대회(10월 1일 또는 2일 예정) △봉은사 그림그리기 대회(9월 10일) 및 전시(9월 26일~10월 9일) △문화체험한마당(10월 1~3일) △신행단체 수계식(10월 2일 오후 1시) 등이다. 자세한 사항 봉은사 홈페이지 참조.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탄자니아 학교에 1억 5000만원

수불 스님, 8월 23일 (재)아름다운동행에 기탁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건립 지원금을 쾌척하며, 학교 건립에 큰 힘을 실었다.

수불 스님은 8월 23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달했다.

수불 스님은 "아프리카에선 처음으로 종단이 큰일을 하는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장기적 운영을 위해선 튼튼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학교 건립 막바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종단협-민평통, 대북사업 MOU

남북교류 · 통일의식 고취 사업 등 전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구)와 대북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대북 · 통일 정책 현안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 사업 △국민 · 청소년 통일교육을 비롯한 국민 통일의식 고취 △기타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고운사 각성 스님 종경록 특강

8월 22~26일까지 화엄문화템플관서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내 화엄문화템플관에서 각성 스님의 종경록(宗鏡錄) 특강을 진행했다.

고운사는 매년 해제 때마다 각성 스님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조계종 제16교구 본말사 대중 스님 100여 명이 참석해 강의를 경청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공무원 조직적 신행 장려"

서울 조계사서 공불련 첫 정기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8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김상규 회장은 인사말서 "정기법회는 매주 셋째주 금요일 조계사서 봉행된다"며 "앞으로 정기법회를 통해 △법사의 전문적 지도로 더 깊은 공부하기 △도반들과 다독이고 경쟁하며 시너지 효과내기 △소통이 화두인 현재 정기적 모임을 통해 도반끼리 원활한 대화하기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수습기자**

평창 대흥사, 태권도 템플스테이

승승장구태권도연합회 90여 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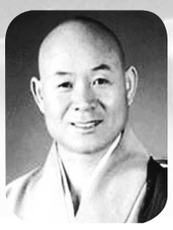
대구 태권도장 연합체 승승장구태권도연합회와 평창 대흥사(주지 인산)는 8월 18~20일 대흥사 일원서 '태권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과 지도교사 90여 명은 물놀이 · 운동회 · 담력훈련 · 불교문화체험 등을 하며 2박3일간 심신을 단련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